



과학의 방법론으로 바라본 주류경제학과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과 「과학과 철학」강의 페어링

경제학과 이규상 교수님, 다산학부대학 이진희 교수님 지도

201121797 경제학과 강태규

목적

패러다임론으로 주류경제학의 형성 및 발전과 행동경제학의 등장이 설명 가능하다.

패러다임론의 등장배경

	귀납주의	반증주의	패러다임
특징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관찰을 통한 일반화로 법칙의 도출 법칙과 초기조건을 통해 연역적으로 현상을 예측/설명	경험적 관찰의 지위를 반증으로 한정 확증을 거부 이론->문제->가설->반증->문제....의 방식으로 과학의 발전	앞선 두 과학의 연구방식에서 분리되어있던 배경이론과 현실 관찰을 '패러다임'으로서 통합시킴, 이를 통한 관찰의 이론 의존성 문제 해결과 정상과학 연구에 안정적인 환경 제공 전 과학->패러다임의 출현->정상과학->위기->혁명....의 구조로 과학의 발전 설명
문제점	관찰의 이론의존성 : 관찰의 객관성의 문제 귀납의 신뢰성의 문제	관찰의 이론의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과학사적 사례에 부합하지 않음	단순히 과학사를 기술적(記述的)으로 설명한다는 비판 연구가 단순히 패러다임의 논의에 갇혀 버린다는 비판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기존 과학의 발전을 설명했던 이론인 귀납주의와 반증주의는 관찰자의 객관적 관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지 못했다. 이에 **패러다임론은 관찰자의 관찰에 작용하는 배경이론을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연구 과정과 통합을 하였고, 패러다임이 구축된 정상과학의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적절히 설명 하였다.** 또한 기존 패러다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위기 그리고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혁명의 단계를 이야기 함으로서, 기존 과학사의 진보 또한 설명하였고 향후 과학의 진보의 가능성 또한 열어 두었다.

'주류 경제학'의 발전과 '행동 경제학'의 등장

주류 경제학	행동 경제학
1776 애덤 스미스 '국부론' 이후 주류경제학의 틀이 형성 1870년대 한계효용학과 이후 물리학의 연구방식을 도입, 최적소비를 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인간)를 가정 , 이런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제한적인 시장 환경에서 수리적으로 분석, 이를 실제 현실 시장에 적용하여 시장을 예측,설명 경제주체와 시장에 대한 가정과, 경제적 행위의 모델을 조작하고 이를 수리적 분석하는 연구방식은 주류경제학 연구법의 패러다임으로 정착 , 향후 주류경제학의 하위 분과들은 시장과 경제주체들에 대한 가정을 공리로써 공유, 단일한 패러다임에서의 주류경제학의 발전을 이끔	1980년대 이후 주류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인간)'에 대한 문제 제기 , 심리학자들과 연계를 통한 실제 현실에서 인간의 선택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실제 경제주체(인간)는, 현실 상황에서 '완전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기 어려우며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의 비용과 편익을 완벽히 수리적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 또한 개인은 실제 선택에 있어서 '소유 효과, 어림 감정(Rule of thumb)을 통한 상황 판단'과 같은 심리적 편향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주장 주류경제학에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설문조사와 같은 연구방식을 사용,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문제에 대해 새로운 가정과 연구법으로 새롭게 접근

패러다임론으로 바라본 경제학의 변화

지금까지의 경제학의 발전 과정 및 연구 방식은 패러다임론으로서 설명 할 수 있다. 즉 애덤 스미스 이후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형성 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계 효용학파를 통해 패러다임 내에서 공유되어지는 배경이론이 등장하면서, 경제학 연구가 단일한 패러다임으로 정립된다. 이후 패러다임 내의 경제학자들은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안정적 연구 환경 안에서, 패러다임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정상과학 연구를 수행한다. 패러다임 내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패러다임을 폐기하는 반증사례가 아닌 변칙사례로써 치부되며 경제학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간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같이 심각한 변칙사례와, 변칙사례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패러다임내의 논의에 위기가 발생하고 기존 패러다임을 지지해 주고 있던 가정과 연구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행동경제학파가 등장하게 된다.** 두 학파는 경제학적 문제를 서로 다른 가정과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며 '불가 공약성'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이런 경제학의 발전과정과 행동경제학의 등장은 패러다임론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결론

엄밀히 말해 행동경제학이 주류경제학적 가정과 연구방식을 모두 거부하는, 즉 혁명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행동경제학자들 역시 주류경제학적 논의와 가정들을 연구하며 행동경제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이런 가정들과 연구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기존 주류경제학에서 중요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되짚어 보며, 현실 상황의 분석에서 주류경제학이 잡아내지 못했던 문제들을 심리학 및 타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기존 패러다임과는 다른 **행동경제학의 독자성**을 설명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경제학의 발전 과정이 과학의 발전 방식을 설명하는 방법론과 맞닿아 있다는 점은, **경제학 또한 과학을 설명하는 일반론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며, 이러한 식의 학문간의 연계를 통한 접근은 경제학의 향후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길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안진환 역, '넛지', 리더스북
리처드 탈러, 박세연 역,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리더스북